

# 광주교육청, 공모사업 43.5% 축소

### 업무 줄여 교사는 '수업·생활교육' 집중

### 표준운영비는 늘려 '학교 자율성 확대'

광주시교육청이 내년도 학교 공모사업을 대폭 줄인다. 현장 교직원들이 공모사업이 아닌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 학교대상 교육청 공모사업 115개 중 43.5%(50개)를 2020년도부터 대폭 축소한다. 이번 조치 특징은 학교 교육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비슷한 성격의 연구회는 유사한 사업으로 통합하거나 학교

표준운영비를 상향해 일선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학교 자율성을 확대했다는 데 있다.

폐지되는 공모사업은 더불어 행복한 환경 UCC 공모전, 민주시민 교육 연수 지원,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 동아리 운영 등이다.

학교스포츠클럽리그 선도학교 운영, 학부모 동아리 운영, 친환경 생태학교 조성 등은 표준교육비 학교별 선택사업으로 전환되고 학

교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전통문화예술교육 운영 학교 지원 등은 신청방식으로 변경되거나 유사한 성격의 사업으로 통합된다.

시교육청은 이번에 학교공모사업을 대폭 줄임과 아울러 공모사업 지원시스템을 오는 11월 중 새롭게 오픈해 공모사업 추진 절차와 과정을 간소화함으로써 학교와 교육청 담당자 행정업무도 크게 경감시킬 예정이다.

시교육청 정책기획과 현석룡 과장은 "이번에 추진된 학교 공모사업 정비는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공모사업의 문제점을 현장의 관점에서 개선하고 주민직선 3기의 방향인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

념하는 학교 환경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지원에 걸림이 되는 불필요한 관행과 행정요소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해 교사들이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학교공모사업은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과 함께 학교 간 과도한 경쟁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일선 학교 교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학교교육과정과 별개로 운영됨으로써 교육본질인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하는 데 걸림돌로 인식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조인호 기자



## '중학생 독서캠프 및 토론회' 운영

### 완도교육지원청

완도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간 완도 원내 스리조트에서 '2019 중학생 독서 캠프 및 토론회'를 운영하였다.

이번 캠프&대회에서는 관내 중학교 6개교 2~3학년 18명(6팀)이 참석, 진로에 관한 도서 '내 꿈은 9급 공무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독서·토론프로그램을 체험하고 토론회에 참여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남혁신교육지구' 세부 사업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체험형 독서프로그램으로 독서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고,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전남형 디베이트를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창

의적 사고, 합리적 판단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고 참가자 모두가 즐기고 소통하는 캠프형 대회를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첫째 날에는 전래 놀이를 통해 협동심을 기르도록 유도하고 독서 끝낸, 다양한 토론 방법을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둘째 날에는 전래 학습한 전남형 디베이트를 실습하는 의미의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토론회 결과, 완도여자중학교가 대상을 차지하여 제9회 전남 중학생 토론회대회 완도군 대표 출전 자격을 부여받게 되었다.

완도=김광식 기자



## 광영고, 역사 바로잡기 캠페인 전개

### 가야산 문화축제로 시민들과 일본 역사 왜곡 규탄

광영고등학교가 지난 18일 교내 행사를 시작으로 21일 광영 가야산 문화축제로 시민 약 1000여 명과 함께 '일본 역사 왜곡 규탄 캠페인'을 벌였다.

전교생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는 '한반도 인간띠 드론 촬영' 및 '독도는 우리땅', '아리랑' 플래시몹을 펼쳤다.

행사를 주관한 광영고등학교(이하 광영고) 학생회는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일본의 행태를 비판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고취하여 일본 제국 불매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를 호소했다.

광영고 학생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전교생이 '백의민족'을 상징하는 하얀 티셔츠를 맞춰 입고 운동장으로 나와 한반도 모양으로 인간띠를 만들어 썼다.

일본의 전범행위를 규탄하는 구

호 제창을 시작으로 '독도는 우리 땅'에 맞춰 플래시몹을 펼쳐 일본 불매 운동을 넘어서 우리 역사에 대한 주인의식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밖에 9월 한 달 동안 △한반도 인간띠 사진 전시 △전교생 '아리랑' 제창 △일본 역사 왜곡 포스터 제작 △일본 위안부를 소재로 한 영화 '눈길' 시청 △작은 소녀상 동상 교내 부가페 설립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사죄 촉구 편지쓰기 △일제 학용품 자율 수거함 제작 등의 행사도 함께 치러 실천하는 역사교육의 장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올바른 역사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난 9월 21일 진행된 '제1회 가야산 큰골 걷기'에 참가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역사 왜곡 행위를 알리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참여를 독려했다.

##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사단 역량강화

###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이 교직원 및 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사단'을 조직하여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강사단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기획된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사단 역량강화 연수'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되었으며 교직원과 학생의 입장에서 강의에 참여하는 시연방식으로 진행됐다.

평등초 배현정 강사는 '성평등한 학교를 위한 모두의 한 걸음'을 주제로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사의 성에 관한 통념을 적시해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학생교육과 연결하여 학급규칙 세우기, 교사로서의 다짐 등 구체적 실천방향을 제시해 강사단의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작년 대규모 스킴미투 발생 학교의 학생 교육과 집단 상담을 기획·실현하며 이를 발전시켜온 광주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오미덕, 김진화 강사는 '우리가 함께 만드는 성평등'을 주제로 학생 교육을 시연했다.

성평등 문장 만들기를 통해

'읽과 성찰을 통한 다짐, 다짐을 통한 실천, 실천을 통한 변화'를 학생들 스스로 이끌어 내는 토론방식의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서로 배려하며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수업이었다.

전남대 양동욱 강사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동의'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차별과 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교육'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여 학생 교육을 위한 강사단의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연수에 참가한 강사단은 "교육 자료를 공유하고 시연방식의 역량강화 연수가 주기적으로 진행되어 강사의 역량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학교 현장교사와 여성단체 활동가와의 협업을 통해 강사단이 도약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연수 소감을 밝혔다.

시교육청 오경미 민주인권생 활교육과장은 "강사단 지원 학교의 결과보고서에서도 교육청의 검증된 강의내용과 강사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만큼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사단의 역량을 높여 학교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에당초, 행복체험 인성캠프 실시



에당초등학교는 '2019 행복체험 인성캠프'를 전교생이 참여한 가운데 보성청소년수련관에서 21일 운영했다.

'2019 행복체험 인성캠프'는 학생들이 자신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하며 타인을 배려하고 서로 소통하고 협동하려는 타인지향적인 인성을 기르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는 인성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학생문화형성을 목표로 운영되었다. 캠프는 학년군별로 3개 반을 편

성하여 인성교육 전문 강사가 반별로 7시간을 운영했다. 오전에는 오리엔테이션 및 안전교육, 마음열기 및 자존감향상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오후에는 미래 유망 직종 탐색, 자신의 미래 설계, 인성덕목 퀴즈 골든벨 등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에당초등학교 구경석 교장은 "학생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존감을 키우며 바른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캠프운영을 지원해 주신 보성교육지원청 백남근 교육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오늘 캠프 내용이 도덕교과 및 생활지도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꾸준한 실천을 통해 몸에 습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